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373

JCCT 2024-7-41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주관성 연구

A Study on the Subjectivity of Parenting Experience of Parents with Adolescent Children

김영희*, 최 향**

YOUNG HEE KIM*, HYANG CHOI **

요약 우리는 최근 상담 현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10~17세가 가장 높았고,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가 가장 많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자녀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춘기 부모 양육경험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상담 및 부모교육을 진행하면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고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에 관한 주관적 인식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Q 모집단을 구성하여 Q 표본 33문항 진술문을 추출한 후, P 표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35명을 대상으로 Q 표본 분류하여, QUANL 프로그램으로 인식유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리의 연구결과, 유형 1은 자녀를 끝없이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인식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형', 유형 2는 자녀와의 공감, 소통과 부모의 성찰 및 변화에 대해 인식하는 '성찰과 변화형', 유형 3은 자녀양육에 대해 배우며 자녀의 심리적 독립과 성장을 돕고 자신도 행복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학습과 심리적 독립 조력형', 유형 4는 어린시절 자녀양육에 대한 후회와 부모로서 정체성 혼란에 대해 인식하는 '후회와 정체성 혼란형' 으로 나타났다. 우리의 연구는 실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경험에 대해 주관적 인식구조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양육경험에 관한 주관성 연구는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교육과 부모상담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주요어 : 사춘기 자녀 부모, 양육경험, Q 방법론

Abstract We confirmed that the children affected by child abuse, which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in the counseling field, were the highest in the ages of 10-17, and the number of occurrences by parents was the highest. We tried to understand the hardships of parents with adolescent children while conducting counseling and parental education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of parenting experienc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growing children.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subjective perception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parenting experience of parents with adolescent children using the Q methodology. After forming a Q population and extracting the 33-question statement of the Q sample, the P sample was classified into the Q sample of 35 parents with adolescent children, and the perception type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QUANL program. As a result of our study, it was found that Type 1 was the unconditional love and understanding type, which was recognized as a process of endless understanding of children, Type 2 was the "reflection and change type," which recognizes empathy with children, communication, and parental reflection and change, Type 3 was the "learning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assistance type," which recognizes that children should be psychologically independent and grow, and Type 4 was the "regret and identity confusion type," which recognizes regret about raising children in childhood and identity confusion as parents. Our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classified the subjective perception structure of parenting experiences perceived by parents with adolescent children by type. It is expected that this subjectivity study on parenting experiences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parental education and parental counseling to raise adolescent children.

Key words : Parents Of Adolescent Children, Parenting Experience, Q methodology

*정희원, 국립순천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제1저자)
**정희원,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교직과 강사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5월 12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30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6일

Received: May 12, 2024 / Revised: May 30, 2024
Accepted: June 16, 2024
**Corresponding Author: bissu90@hanmail.net
Dept. of Education, Sunchon National Univ, Korea

I. 서론

부모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녀가 학습하는 최초의 경험 대상자이자 중요한 스승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유전적 영향뿐 아니라 독립된 존재로 있기까지 사회화와 인성의 근본이 형성된다. 모든 직업 중에 부모라는 직업은 가장 중요하며, 가장 도전적인 직업이다[1].

10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사춘기를 경험한다. 평균적으로 여성은 10~14세, 남성은 12~16세에 사춘기를 겪는다[2]. 최근 코로나 19팬데믹 이후 또래 집단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활동이 제약된 사춘기 시기의 학생들이 이전 세대보다 더 심각한 사춘기 증상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춘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부모도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양육 경험의 어려움을 반영하듯 사춘기 자녀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는 방송의 시청률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이혼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편부, 편모의 한부모 가정, 재혼가정,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으로 가정마다 주양육자가 다름을 볼 수 있다.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시기는 부모의 중년기와 대부분 일치하는데, 잘못된 사춘기 자녀 부모 양육 경험을 대변하듯 전체 아동학대 27,971건 중 10~17세 피해아동이 16,566건(59.2%)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에 의한 발생 건수는 23,119건(82.7%)이며, 학대 행위자 연령의 경우, 30대~50대 비율이 24,733건(88.4%)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되었다[3]. 또한, 중년여성 스트레스가 5점 만점에 평균 평점이 2.95로 비교적 높은 수치로 나온 부분도,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양육하는 어려움을 표현하는 증거 중의 하나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4]. 급변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사춘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부모들은 양육방식에 대한 후회와 미안함,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자녀에게 서운함과 허탈감, 사고칠까 걱정되는 불안함과 힘듦, 자녀행동이 아니꼬워도 참지만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 자녀에게 포기감을 느끼기도 한다[5].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경험에 대한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인식유형을 알아보고, 사춘기 자녀 양육 경험을 예측하여 진술문을 사춘기 자녀 양육을

하는 부모들에게 직접 질문을 함으로써 긍정적인 면이나 예방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경험과 어려움의 형태를 미리 살펴봄으로써 사춘기 자녀에 대한 양육방법에서의 주 호소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춘기 자녀와 부모

1904년 홀(Hall)은 'Adolescence'라는 책에서 사춘기를 인생의 발달과정에 독특한 특징이 보여지는 시기로 아동에서 성인으로의 발달과정 중 과도기적인 심리·정서적 혼란기로 보았다[6]. 사춘기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증가하면서 뇌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를 자극한다. 또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주는 사고능력, 감정 조절 능력을 만들어내는 전두엽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짐으로 인해 뇌 발달과 동시에 정서적 변화가 일어나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지만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임으로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고 회복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사춘기 양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실제 연구 결과, 60% 이상의 대다수 청소년은 사춘기에 별다른 문제행동을 하지 않지만 40%의 청소년은 이 시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2]. 따라서 사춘기 부모는 자녀를 문제아로만 보는 것이 아닌 발달 과정상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인식함으로 사춘기 시기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7].

2. 사춘기 자녀 양육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 9편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에 간행되었고, 주로 심층 면담을 통한 내러티브 연구나 현상학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연구 대상의 연령은 40대~50대 초반 사춘기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며, 사춘기의 연령은 주로 12~17세로 볼 수 있다. 6편의 양부모 가정의 사춘기 어머니 양육 경험 연구에서는 주로 자녀 사춘기의 막연한 대비, 회피, 맞닥뜨림, 감정 얽힘, 상처받음, 홀로서기 고유한 존재, 자녀와 관계가 편안해짐, 품안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하

기, 변화의 관계에 대한 공통적인 주제가 발견되었다 [8]. 사춘기 한부모 가정 어머니의 양육 경험 연구에서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부모가 됨, 생활고에 시달림,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 세상의 굳어진 시선으로 인해 힘듦, 자녀의 사춘기로 인해 양육 스트레스가 가중됨, 주변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부터 고립됨, 그래도 세상은 살아볼 만함으로 7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9]. 사춘기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아버지 양육 경험 연구에서는 우여곡절에 한 부모가 됨, 사회, 정서적 지지자원의 부재, 경제적 어려움과 좌절감, 역할 과중으로 인한 한계, 사춘기 자녀와 관계가 멀어짐, 정서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감 경험, 미래에 대한 불안, 고단해도 자녀로 인해 힘이 되어 살아감 이라는 ' 8개의 구성요소가 도출되어,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 양육 경험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10]. 북한이탈 여성의 청소년 자녀 양육 경험 연구에서는 '쉽지 않은 남한 사회의 진입,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 과도한 양육부담 조건에 처함, 남한의 과열된 자녀교육의 현실에 부딪힘, 가중된 청소년 자녀양육의 어려움, 다른체제 사회에서 양육역할 전환 어려움, 내 자녀의 부모 역할 찾기, 대처과정에서 극복 성장, 남은 과제와 더 좋은 양육을 위한 바람' 이라는 경험구조를 도출하였다[11].

질적연구 결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양육 경험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자녀성장이나 존재 자체로 힘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 Q 방법론(Q Methodology)

1935년에 Stephenson이 창안한 Q 방법은 인간의 행동과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 심리학적, 철학적, 통계적, 심리측정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통합한 방법론으로써 요인분석과 상관분석을 적용하여 인간의 주관성을 정량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특수한 통계기법이다[12, 13]. Q 방법론은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신념, 태도, 가치 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며, 어떤 주제나 특정 대상에 대하여 개인 간 차이가 아닌 개인 내의 차이점을 이해하여, 인간의 태도 및 경험으로부터 얻어지는 지각을 바탕으로, 질적인 접근방법과 양적인 접근방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혼합연구 방법이다[14-17].

사춘기 자녀 양육 경험 연구에 관한 질적연구는 늘

어나고 있는 편이나, 사춘기 자녀 양육 경험을 인식하여 유형으로 분류한 연구는 없다. 이에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양육 경험에 대해 주관적 인식의 유형화와 특성을 분석하는 Q 방법론을 활용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III. 연구설계

1. 연구 문제

- 1)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경험 인식 유형은 어떠한가?
- 2)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경험 인식 유형의 특성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1) Q 모집단 구성

Q 모집단을 구성하기 위해 사춘기 부모 양육과 관련된 전문 서적 및 문헌연구와 관련하여 100개 진술문, 사춘기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경험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후 100개의 진술문을 추출하였으며, 집중 인터뷰(FGI: focused-group interview) 하여 보다 깊이 있는 사춘기 양육 경험에 대한 진술문을 40개를 추가하여 사춘기 양육 경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총 240개의 모집단을 추출하였다. 진술문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인터뷰는 사춘기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춘기 부모와 자녀를 20년 이상 사례 관리하는 사회복지사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Q 표본(Q sample) 선정

Q 표본 선정을 위해서 240개의 진술문을 연구자가 1차로 Q 모집단 읽기를 반복하여 공통된 의미나 의미가 애매한 문장과 중복되는 문장을 삭제하고, 70개 문항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학 전공 교수 1명, 교육학 박사과정 수료 3명, 부모교육 상담 전문가 2명, Q 방법론의 전문성 있는 교수 1명 등이 최종 점검하여 33개의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3) P 표본 선정

P 표본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서울, 대구, 천안, 광주, 전북, 전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12세~만18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35명을 대상으로

로 대면과 메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고 응답에 참여하여 Q 분류(Q sorting)를 실행하였다.

4) 분류

그림 1의 Q 표본의 분류는 인쇄된 진술문의 표를 개인이 생각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과 가장 비동의하는 진술문을 정규분포표에 나누어서 넣는 강제 분류방식(Forced Distribution)을 적용하여 Q 표본분류를 진행하였다. 아래 그림 1에서와 같이 강한 긍정에서 강한 부정까지 -4~+4까지 9점 척도로 구분하고 양쪽 끝단에서 분류된 진술문(강한 동의, 강한 비동의) 2개씩을 P 표본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고,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적인 인터뷰를 진행하여 설문하는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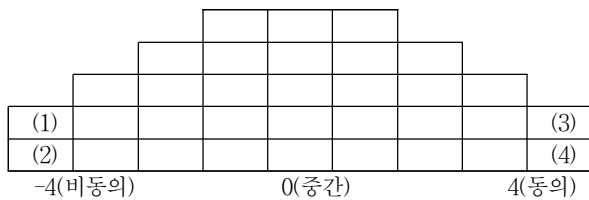


그림 1. Q-표본 분류 분포도(Q=33)
Figure 1. Q-sorting Distribution

5) 자료처리 및 분석

Q 표본 분류에 따라 자료처리 및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QUANL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처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류된 유형을 파악하여 이들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명명하였다. 또한 각 유형에서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 응답자의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여서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IV. 실험 및 결과

1. 유형 분류

연구 결과 표 1과 같이 사춘기 부모의 양육 경험에 대한 인식유형은 총 네 가지로 분류되었다. 각 유형 아이겐 값(eigen values)은 유형의 특징을 표현하는 고유값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고유값이 1.0 이상이면 적절하다. 4가지 유형의 각각 고유값은 유형 1이 10.7076, 유형 2가 2.0605, 유형 3이 1.9541, 유형 4가 1.4783이며,

누적 변량은 0.4629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46%이다.

표 1의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 간의 유사성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유형 1과 유형 2는 0.556, 유형 1과 유형 3은 0.627, 유형 1과 유형 4는 0.055, 유형 2와 유형 3은 0.648, 유형 2와 유형 4는 -0.018, 유형 3과 유형 4는 0.013로 나타났다.

표 1. 유형별 고유값과 총변량, 누적변량, 상관계수
Table 1. Eigen value, total variance, cumulative, and correlations between Types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고유값	10.7076	2.0605	1.9541	1.4783
총변량	0.3059	0.0589	0.0558	0.0422
누적변량	0.3059	0.3648	0.4206	0.4629
유형1	1			
유형2	0.556	1		
유형3	0.627	0.648	1	
유형4	0.055	-0.018	0.013	1

2. 유형별 P 표본과 인자가중치

표 2에 보인바와 같이 Q 표본 분류의 결과에 따라 분류된 인식유형별 인자가중치는 유형별 대표성을 나타내며 가중치가 높을수록 유형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 인식유형의 인자가중치를 살펴보면 유형 1은 P=1이 2.2260로, 유형 2는 P=3이 1.3469로 나타났고, 유형 3의 경우는 P=20이 1.0671로, 유형 4는 P=5이 .71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유형별 P-표본과 인자가중치
Table 2. P-samples and factor weights

유형	P 표본	부모 연령	부모 성별	자녀 연령	자녀 성별	적재치
유형 1 (N=8)	P1	46	여	14/17	남/여	2.2260
	P7	52	여	18	여	0.6666
	P12	49	남	15	남	1.5273
	P13	50	여	15/18	여/남	0.9281
	P19	50	남	14/18	남/남	1.5066
	P28	42	여	13/15	여/남	0.5134
	P29	49	남	16	남	0.4201
	P31	49	남	15/18	여/남	2.0516
유형 2 (N=9)	P3	55	여	18	여	1.3469
	P4	46	여	14	여	0.8191
	P6	42	여	12	여	0.8475
	P21	49	여	15	여	0.6919
	P22	43	여	12/16	여/남	0.9561
	P26	50	여	18	여	0.5186
	P27	43	여	13	여	0.6918
	P30	49	여	16	남	0.5602
	P32	46	여	15/18	여/남	0.9327
	유형 3 (N=16)	P2	49	여	18	여
P8		47	남	16	여	0.6459

	P9	48	여	17	여	0.7683
	P10	42	여	14	남	1.0300
	P11	39	여	15	남	0.6089
	P14	46	여	14	남	0.7609
	P15	50	남	14	여	0.5140
	P16	45	여	17	남	0.8305
	P17	39	여	12/15	남/남	0.4548
	P18	41	여	14	남	0.4208
	P20	46	여	14	남	1.0671
	P24	49	여	15/18	남/남	0.4213
	P25	44	남	14	남	1.0063
	P33	55	여	17	여	0.3119
	P34	49	여	12	여	0.8239
	P35	49	여	18	여	0.3618
유형 4 (N=2)	P5	48	여	15	여	0.7131
	P23	51	여	18	여	0.4570

3. 유형별 특성

1) 유형 1: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형

표 3은 유형 1의 표준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을 나타낸다.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자녀와 친구가 되어가고 자녀를 끊임없이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인식하여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형’이라고 명명하였다. Q5의 ‘사춘기 자녀 양육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낀다(z= 2.12).’에서 가장 동의를 보였다. 반면,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은 Q6의 ‘사춘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기분이다(z= -1.94).’이다. 유형 1에 대해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1(적재치=2.2260)은 ‘자녀와 부모 관계는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보듬어 주는 아무런 조건없는 무한 사랑이다’는 의견과 P=31(적재치=2.0516)은 ‘사춘기 자녀의 거친 말투와 반항,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부모는 상처주는 말을 하기보다 무조건적인 존중과 사랑이 사춘기 과정을 가장 짧고 현명하게 지나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고 진술하였다.

표 3. 제1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Table 3. Statements with Z-scores of ±1.00 or higher in Type1

번호	진술문	Z-score
5	사춘기 자녀 양육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2.12
9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 친구가 되어간다.	1.77
12	사춘기 자녀양육은 공감, 소통, 존중에 대해 배움이 필요한 시간이다.	1.55
13	사춘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를 끊임없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1.49

25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1.49
2	사춘기 자녀 양육은 자녀의 심리적인 독립을 돕는 것이다.	1.01
19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아이가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	-1.03
16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자와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다.	-1.10
31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실타래와 같이 영리한 감정을 경험한다.	-1.35
23	사춘기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대화가 힘들다.	-1.78
6	사춘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기분이다.	-1.94

2) 유형 2: 성찰과 변화형

표 4는 유형 2의 표준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을 나타낸다.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공감, 소통, 존중에 대해 배우며 부모로서 성찰하고 변화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성찰과 변화형’이라고 명명하였다. Q12의 ‘사춘기 자녀 양육은 성찰과 변화의 시간이다(z=1.65).’에서 가장 동의를 보였다. 반면,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은 Q1의 ‘사춘기 자녀 양육은 처음 맞닥뜨리는 당황스러움이다(z= -2.50).’이다. 유형 2에 대해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3(적재치= 1.3469)은 ‘이해 없는 교류는 불통을 초래하며,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는 문화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사조가 다르고 경험과 감정선이 다르

표 4. 제2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Table 4. Statements with Z-scores of ±1.00 or higher in Type2

번호	진술문	Z-score
10	사춘기 자녀 양육은 성찰과 변화의 시간이다.	1.65
12	사춘기 자녀 양육은 공감, 소통, 존중에 대해 배움이 필요한 시간이다.	1.65
27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변화해야 한다고 느낀다.	1.40
13	사춘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를 끊임없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1.31
33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1.05
32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무능력감을 느낀다.	-1.21
11	사춘기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자녀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아 힘들다.	-1.40
6	사춘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기분이다.	-1.68
19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아이가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	-1.73
1	사춘기 자녀 양육은 처음 맞닥뜨리는 당황스러움이다.	-2.50

므로 부모도 자녀를 통해 배우기도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해야 한다' 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3) 유형 3: 학습과 심리적 독립 조력형

표 5는 유형 3의 표준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을 나타낸다.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공감, 소통, 존중에 대해 배우며, 자녀의 심리적 독립과 성장을 돕고 부모 자신도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여 '학습과 심리적 독립 조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Q12의 '사춘기 자녀양육은 공감, 소통, 존중에 대해 배움이 필요한 시간이다(z= 2.10).' 에서 가장 동의를 보였다. 반면,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은 Q33의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z= -1.92).' 이다. 유형 3에 대해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20(적재치 =1.0671)은 '내가 생각하는 자녀의 모습이 아닌 다른 행동을 하고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결국 한 인격체로 완성되어갈 아이들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 시기에 아이들을 대할 때 공감, 소통, 존중과 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 는

표 5. 제3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Table 5. Statements with Z-scores of ±1.00 or higher in Type3

번호	진술문	Z-score
12	사춘기 자녀 양육은 공감, 소통, 존중에 대해 배움이 필요한 시간이다.	2.10
2	사춘기 자녀 양육은 자녀의 심리적인 독립을 돕는 것이다.	2.01
13	사춘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를 끊임 없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1.88
10	사춘기 자녀 양육은 성찰과 변화의 시간이다.	1.50
18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교육은 필요하다.	1.23
20	사춘기 자녀의 성장은 기쁨이다.	1.18
25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1.11
30	사춘기 자녀의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 성장의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	-1.02
19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아이가 너무 낯설게 느껴진다	-1.07
8	사춘기 양육도서 내용과 다른 자녀의 모습에 놀란다.	-1.14
6	사춘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기분이다.	-1.16
23	사춘기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대화가 힘들다.	-1.19
33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1.92

의견과 P=10(적재치=1.0300)은 '사춘기는 어른으로서 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춘기 부모 역할은 자녀에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들을 가르침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리적·환경적으로 돕는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다.

4) 유형 4: 후회와 정체성 혼란형

표 6은 유형 4의 표준점수 ±1.00 이상의 진술문을 나타낸다.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린시절 자녀 양육을 후회하면서 부모로서 정체성에 혼란을 인식하여 '후회와 정체성 혼란형'이라고 명명하였다. Q26의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린시절 자녀 양육방식을 후회한다(z=2.05).' 에서 가장 동의를 보였다. 반면, 가장 강한 비동의 항목은 Q14의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최신 유행하는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z= -1.83).' 이다. 유형 4에 대해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은 P=5(적재치=.7131)은 '어린 시절 더 신경 써주고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해 주었더라면 어땠을까 많이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랬더라면 덜 반항적이고 상처가 덜 되고 대화가 더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고 진술하였다.

표 6. 제4유형의 표준점수 ±1.00 이상인 진술문
Table 6. Statements with Z-scores of ±1.00 or higher in Type4

번호	진술문	Z-score
26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린시절 자녀 양육 방식을 후회한다.	2.05
33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1.70
31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실타래와 같이 영긴 감정을 경험한다.	1.61
13	사춘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를 끊임 없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1.58
24	사춘기 자녀 양육은 나의 틀을 깨는 시간이다.	1.26
5	사춘기 자녀 양육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1.23
16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자와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다.	-1.04
20	사춘기 자녀의 성장은 기쁨이다.	-1.36
27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변화해야 한다고 느낀다.	-1.36
23	사춘기 자녀의 스마트폰 과몰입으로 대화가 힘들다.	-1.38
28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선배 부모님들이 위대하다고 느낀다.	-1.48
14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최신 유행하는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1.83

4. 일치 항목

표 7의 일치 항목(consensus items)은 결과적으로 각각의 요인 유형이 공통적인 합의가 있는 것을 나타낸 항목들을 말하는데, 총 10개로 나타났다[14]. 본 연구에서 10가지 유형에 일치하는 진술문은 Q13, Q10, Q18, Q29, Q4, Q15, Q3, Q7, Q8, Q16 로 나타났는데 부연해서 설명하면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대체로 자녀를 끊임없이 이해하는 과정이며, 겸손함을 배우고 성장하는 변화의 시간으로 자녀가 성장할 때 삶의 의미를 찾으며, 성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하지만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미안한 마음과 부모가 홀로서기를 배웠으며, 양육도서 내용과 다른 자녀의 모습에 놀랐거나 배우자와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든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Q 표본의 진술문을 강제 분류하여 분포시켜야 하는 방법론의 특성상 중요한 점은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주관적인 양육 경험 견해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분석 결과에 대해 실제적인 대안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춘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7. 각 유형의 일치 항목
 Table 7. each type of consensus items

번호	진술문	Z -score
13	사춘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자녀를 끊임없이 이해하는 과정이다	1.56
10	사춘기 자녀 양육은 성장과 변화의 시간이다.	1.19
18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성교육은 필요하다.	0.88
29	사춘기 자녀 양육을 통해 양육자로서 겸손함을 배운다	0.17
4	사춘기 자녀 양육과정에서 나의 과거가 떠올라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된다	0.15
15	사춘기 자녀의 성장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시간이 된다.	0.14
3	사춘기 자녀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미안한 마음이다.	-0.05
7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며 홀로서기를 배웠다.	-0.51
8	사춘기 양육 도서 내용과 다른 자녀의 모습에 놀란다.	-0.76
16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배우자와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다.	-0.84

V.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이 연구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경험에 관한 인식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문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였다.

첫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경험 인식유형에 대한 연구 결과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형’, ‘성찰과 변화형’, ‘학습과 심리적 독립 조력형’, ‘후회와 정체성 혼란형’ 으로 도출되었다. 유형 1은 사춘기 자녀 양육은 무조건인 사랑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특성에 따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해형’이라 명명하였는데, 무조건적 자녀 사랑의 회복 연구와 일치한다[8]. 유형 2는 부모도 사춘기 자녀를 양육하며 성장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특성에 따라 ‘성찰과 변화형’이라 인식하는 유형으로, 부모도 함께 성장 변화한다는 연구와 일맥상통한다[18]. 유형 3은 부모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끊임없이 배우며 자녀도 심리적 독립이 필요하고 부모도 행복해야 한다는 특성에 따라 ‘학습과 심리적 독립 조력형’이라 분류하였는데, 성장통과 함께 독립된 주체로 받아들인다는 연구 와 맥을 같이 한다[5, 8]. 유형 4는 어린시절 자녀 양육에 대한 후회와 부모로서 정체성 혼란의 특성에 따라 ‘후회와 정체성 혼란형’ 이라 명명하였는데, 양육대처 행동의 후회와 가치관 혼란을 경험한다는 연구와 결을 같이하고 있다[18].

둘째,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경험 인식유형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유형 1의 자녀와 부모 관계는 아무런 조건 없는 무한 사랑이라는 특성은 그 시간을 통해 부모들은 조건 없이, 모습과 바뀔 정도의 관계 회복의 경험이라는 연구와 일치한다[8]. 유형 2의 이해 없는 교류는 불통을 초래함으로 부모도 배우며 돌아보고 변화해야 한다는 특성은 갈등 속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이해하고 노력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18]. 유형 3의 한 인격체로 완성되도록 심리적, 환경적으로 돕고 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특성은 자녀를 독립된 객체로 인정하며 부모 또한 성장하고,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5, 8]. 유형 4의 어린 시절 더 신경 써주었더라면 상처가 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한다는 특성은 어린 시절 원가족과의 경험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같다[18].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양육 경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인식 유형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실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경험에 대해 주관적 인식구조를 4가지 유형별로 분류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유형별 특성에 따른 부모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양육자의 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개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춘기 부모의 나이, 직업, 학력, 연령, 지역 등 인구학적 배경의 한계가 있음으로 직업별, 지역별, 연령별로 나누어 인식유형과 특성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춘기 자녀와 부모의 관계 개선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 및 부모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양육경험 연구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M. H. Popkin, "Doc Pop's 52 Weeks of Active Parenting: Proven Ways to Build a Healthy and Happy Family," *Georgia: Active Parenting*. PP. 15, 2005.
- [2] B. N. Kim, "My kid going through puberty, why did he get so weird," *Chosun Ilbo: Seoul*, 2021.07. 19. https://www.chosun.com/special/special_section/2021/07/19/UJNF7GOPZBAFVEGLN2YPW7EUNU
- [3]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2 Key statistics on child abuse," PP. 23-28, 2022.
- [4] K. J. Lee, S. Y. Lim, and S. J. Kim,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Hardiness and Self-Esteem in middle-aged woma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1, No. 4, pp. 51-57, 2015. <http://dx.doi.org/10.17703/JCCT.2015.1.4.51>
- [5] D. S. Kim,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arenting experience of children's adolescence," *Kyungsh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7. <https://www.riss.kr/link?id=T14382599>
- [6] Hall, G. S., "Adolescence: Its psychology and its relations to physiology, anthropology, sociology, sex, crime, religion, and education," *New York: Appleton*, 1904.
- [7] J. E. Lee, "The ontological inquiry of mother with adolescent children," *Hanyang University PhD, Thesis*, 2019. <https://www.riss.kr/link?id=T15333753>
- [8] E. k. Kim, "Analysis of Parents' Adult Learning Process in the Experience of Raising Adolescent Children: Focusing on Middle-class, highly educated, middle-aged parents," *Korean Society for Qualitative Exploration*, Vol. 2019, No. 3, pp. 291-294, 2019.
- [9] Y. S. Kang, "Qualitative phenomenological research on stress experience by single mothers rearing adolescent children," *Kyungsh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https://www.riss.kr/link?id=T13099535>
- [10] S. Y. Lee,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Stress Experience of Fathers in Low-Income Single-Parent Families with Adolescent Children," *Kyungshu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https://www.riss.kr/link?id=T13535242>
- [11] J. E. Jang,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Parenting Experi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with Adolescent Children,"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https://www.riss.kr/link?id=T14023695>
- [12] B. McKeown, and D. B. Thomas, "Q Methodology," *Sage Publications Inc*. 1988.
- [13] J. Y. Lee, and S. A. Park, "Nursing students' and instructors' perception of simulation-based learn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Vol. 8 No. 1, pp. 44-55., 2020. <https://doi.org/10.17703/IJACT.2020.8.1.44>.
- [14] E. A. Park, and E. J. Lee, "Attitude about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male-female in the middle ag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4, No. 2, pp. 131-138, 2018.
- [15] H. J. Jung, "A Study on the Subjectivity of Christian Coaching,"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Vol. 2022, No.73, pp. 225-261, 2022. <https://doi.org/10.23216/dgu.000000084693.11020.0000516>
- [16] H. J. Kim, "Study on the usefulness of Q methodology: Focusing on examples of election campaigns" *Subjectivity Research*, Vol. 25, No. 4, pp. 5-24, 2006.
- [17] S. Ramlo, and I. Newman, "Q methodology and

its position in the mixed methods continuum,”
International Host Scientific Research Council
Vol. 34, No. 3, pp.172–191, 2011. DOI: 10.22488
/okstate.11.100594

- [18]S. I. Kwon, and J. W. Yang, “a mother’s
adolescent child Exploring the Narrative of
Parenting Experience,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5, pp. 143-166, 2019.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5.143>